

2015년 물류시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弘報室 : (02)
6050-3602~5

이 자료는 **12/9(火)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12/8(月) 11:00부터**

* 문의 : 물류혁신팀 임재국 팀장(6050-1440), 박차미 과장(6050-1443)

물류전문가 과반 “내년 물류시장 올해 수준” … “위축될 것” 28%

- 물류전문가 대상 조사 ... “2015 물류시장 경기 올해와 비슷” 51%, “반짝 회복세 그칠 가능성도”
- 분야별로는 ‘택배업’ 가장 선전 ... “전자상거래, TV홈쇼핑 시장의 확대, 해외직구 증가 탓”
- 내년 물류시장 주요이슈는 ‘선진국 경기변동’(43%), ‘국내경기회복’(40%), ‘환율변동’(34%) 순

내년 물류시장 경기는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됐다. 물류 분야별로는 택배업이 가장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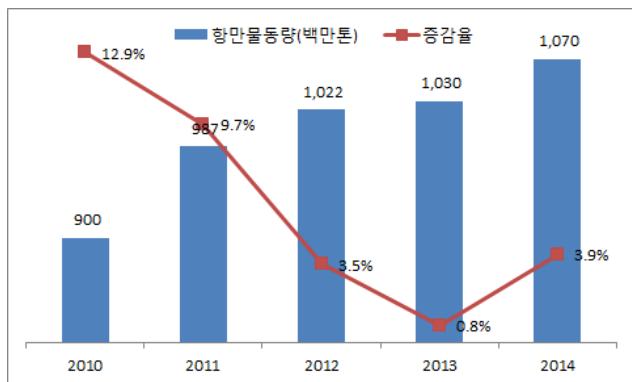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기업 물류담당 임원, 학계·연구소 전문가 등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물류시장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0%가 ‘내년 물류경기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보다 위축될 것’이라는 응답은 28.0%였고,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1.0%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둔화세를 보이던 물류경기는 올해 들어 회복되는 양상이다. 물류경기를 추정할 수 있는 항만물동량 증가율을 살펴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항만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10년 12.9%, 2011년 9.7%에 이어 지난해 0.8%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 들어 성장률이 3.9%까지 반등했다. 항공물동량도 2010년 17.1%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다 올해 5.5%까지 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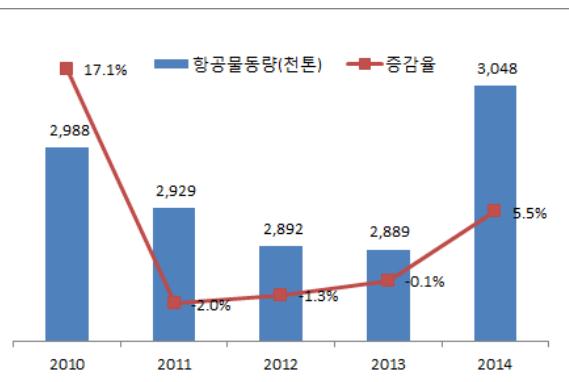
대한상의는 “올해는 선박과 철강, 컴퓨터, 메모리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미국·중국 수출 호조와 해외직구 증가 등에 힘입어 항공·항만물동량이 반등에 성공했다”면서도 “회주의 단기적인 압력과 선복량 공급과잉 등으로 물류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전망은 낙관적이지만은 않으며, 내년 수출과 내수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 반짝 회복에 그치며 물류업계가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림1> 항만물동량 추이(1월~10월 누적, *출처:SP-IDC)



<그림2> 항공물동량 추이(1월~10월 누적, *출처:한국공항공사)



경기가 가장 좋을 물류업종으로 전문가들은 '택배'(76.0%)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창고/보관'(41.0%), '3PL'(35.0%), '항공운송'(35.0%), '포워딩'(32.0%), '육상운송'(26.0%), '해상운송'(24.0%) 등을 차례로 꼽았다. <복수응답>

대한상의는 "택배업은 경우 전자상거래와 TV홈쇼핑 시장의 확대, 해외직구 증가, 경기불황기에 따른 알뜰 소비족 증가로 계속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내년 물류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로는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 변동'(43.0%)을 꼽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 등 국내 경기 회복세'(40.0%), '환율 변동'(34.0%), '해외 신hon국의 성장률'(24.0%), '물류기업 간 경쟁심화'(18.0%), '대형물류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17.0%), '유가 변동'(15.0%), '물류부문 규제'(14.0%) 등이 이슈로 꼽혔다. <복수응답>

물류기업이 지속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과제로는 '기존 물류서비스 외에 다양한 부가가치 수익 모델 발굴'(52.0%), '중국, 베트남 등 신규해외시장 진출'(37.0%),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34.0%) 등이 꼽혔다. <'화주의 요구에 맞는 물류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33.0%), '기존 고객과의 안정적 거래관계 확립'(18.0%), '전문인력양성, 현장인력 확보 등 인적자원관리'(12.0%),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11.0%), 전문인력양성, 현장인력 확보 등 인적자원관리'(12.0%), 복수응답>

향후 물류시장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으로는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57.6%), '물류산업 규제 완화'(43.4%), '해외시장 진출 지원'(33.3%), '3PL 활성화 방안' 마

련'(32.3%), '공항·항만 등 물류인프라 확충'(20.2%), '물류인력 양성 지원'(10.1%) 등이 제시됐다.
<복수응답>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국내 물류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최근 물류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역직구시장을 공략하고 옴니채널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중국, 베트남 등 신규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며 "아울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최신 물류기술을 도입해 물류효율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개요〉

- 조사대상 : 기업 물류담당 임원 85명, 학계 및 연구소 전문가 15명 등 100명
- 조사기간 : 10/21~11/4
- 조사방법 : 전화 및 FAX 조사